

2024년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신년사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소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은 기후 환경 변화, 지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인한 어려움이 산재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치료제로서의 희망을 보이면서 급속도로 학문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신바이오틱스를 넘어 다음 단계인 포스트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 및 산업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작년에 우리 학회는 춘계 및 추계 국제 학술대회에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으며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의 중심점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글로벌 기관들과 학문적 산업적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의 활동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024년 올해는 첫째, 학문적 연구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분야가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외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산학네트워크 강화로 우리의 학문적 연구가 인류건강과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성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시작으로 한국의 대표 학회로서의 글로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학회의 외형이 확대되는 만큼 운영 방법도 더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학회의 활동에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사)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
회장 박성선